

특집

동국대학교 개교 90년

미래동국 첨단사회 이끈다

국내외에 학교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동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각종 행사와 사업을 이끌고 있는 송석구 총장은 "동국인은 누구나 자비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체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는 참사람됨을 강조한다." "개교 90주년을 계기로 동국 100년을 향한 비전을 실현 시키려는 다짐으로 마음을 응집시켜 동국인 모두가 학교발전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교 1백주년을 맞은 2006년까지를 목표로 학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추진하고 계시는데 향후 10년간 사업들을 지속하는과정에는 말

학을 불교학부로 개편해서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불교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학생들을 폭넓게 수용 불교학의 최첨단으로 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립대학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해 종단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종단을 배제한 학교의 발전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간 종단에서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 불교학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학교발전과 불교의 발전이 하나의 맥락임을 모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학교와 종단의 관계는 매우 발전적이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가

종립 동국대(총장 송석구)가 개교 9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며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웅비할 도약을 다지고 있다.

동국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캠퍼스 학술문화관 중국장에서 개교 90주년 기념식을 갖고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첨단사회를 이끌어갈 교육환경개선 등 동국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미 추진되고 있는 백주년기념사업과 21세기를 향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도 재추진한다.

동국대가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펼치는 행사는 모두 30여가지에 이른다. 이미 지난 17일 경주캠퍼스에서 봉행된 '동국의 종' 타종식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열릴 기념행사는 동국인의 자부심 고취와 대사회적 학교 이미지 부각을 통한 학교발전의 도약대마련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국대가 마련한 기념행사는 문화·학술·해외교류·봉사·신행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

념으로 90년의 역사를 다져 온 종립대학의 특성과 사회기여도를 최대화 시킨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국대는 세계와 시대의 학교 이미지 부각을 위해 '동국 IUP(동국대학교 이미지 통일화 계획)' 작업을 사들여 기본 심볼과

◇개교 9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은 올 한해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며 동국 1백년 비전을 제시한다. 사진은 지난날 17일 경주캠퍼스에서 행해진 '동국의 종' 타종식.



인터뷰 송석구 총장



은 난관도 있으리라 봅니다.

▲개교 9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재반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사업이 많다는 것이 곧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학교의 발전이 불교의 발전'이라는 대의로 귀결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난관이 재정의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재단의 의지력과 학교발전을 열망하는 동국가족들의 마음이 하

産學研단지·불교종합병원 등 '비전동국 100년' 기틀다져 문화·학술·신행등 30여 기념행사... 건학이념 구현 다짐

열린교육 참사람 육성 "동국대 발전은 불국토건설 초석입니다" '후원의밤' 등 각종 행사로 동국가족 결속

나로 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요람에서 무던까지를 책임질 불교병원의 설립은 중요한 포교사업이자 수익사업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통일시대 대학은 역시 우리대학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교와 구성원들의 발전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업의 추진은 용이해 지는 것이라 믿으며 '후원의 밤' 등 행사를 통해 동국가족을 결속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계획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나라의 학자라도 한국의 동국대학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미 해외의 여러 대학과 지대결연을 맺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 교환교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공에 관계없이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교대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지구력을 가지도 발전의지를 키워 가는 만큼 종단의 협조와 지원도 증폭되리라 봅니다.

-아구부가 96 불학대학리교전에서 우승을 함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냈는데 체육분야의 육성도 학교 발전의 큰 몫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지난해부터 구기 3종목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을 해 이번 우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정상세대에 오르리라 봅니다. 체육종목의 옛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동국가족의 자긍심 고취의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불자들과 동국인들을 위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제 동국대학은 한국불교의 과거 2천년을 미래의 2천년으로 비약시키려는 도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의 아카데미즘과 불교신앙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구성원과 동문 종단 스님들 전 불자들이 불교발전의 디딤돌이 될 동국대학의 발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

로고 상징 캐릭터를 올 가을에 선보일 계획이다. 또 동국대의 비전과 개교기념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이다. 개교 90주년 행사 가운데 KBS 열린음악회 유치와 세계불교 학술회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운이상 불교음악의 진수를 맛보일 기념음악회, 영담공인 사업 관련 세미나 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한해를

새 출발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다짐 아래 동국대가 제시한 동국 100년의 비전은 개교 1백주년인 되는 2천 6년까지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벌일 각종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교수발전제의 정착과 학부제의 시행,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교육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단기계획과 산학연구단지 건립, 불교종합병원(양·한방 복합)설

립의 중기 계획, 또 세계 1백대 대학으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의 실현에 매진한다는 것이 학교측의 포부다. 통일시대 대학다운 건립, 영담공인 조성사업,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의 구체화, 평생교육 체제 실현과 자비실현 봉사인력 양성, 캠퍼스 별 특성화 계획 등도 동국 100년 비전의 주요 사안들이다.

이미 동국대는 학교발전의 추

진방향과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 제3캠퍼스, 경영합리화, 양·한방종합병원설립등이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이들 사업은 이미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1백 30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동국대는 98년까지 1천억원, 2천6년까지 3천억원의 조성계획도 학교구성원과 동문들의 호응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임연태 기자

교육개혁 박람회 참가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무한정정시대 대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동국대는 컴퓨터·외국어교육을 전교생의 전공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이학실습실에서 외국어교육을 받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종립 동국대는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동안 교육부가 주최하고 KBS 문화사업단이 주관해 KOEX(한국종합전시장) 발관에서 열리는 '교육개혁 박람회'에 참가한다. 전국 20여개 대학과 15개 교육청, 16개 교육산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교육개혁박람회에 동국대는 6개부스를 마련하여 개교 90주년과 2006년에 맞게 된 개교 1백주년을 계기로 건학이념, 역사, 교육목표, 미래에 대한 비전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내용을 대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동국 100년-비전 2006년'을 주제로 멀티비전·컴퓨터·스크린·책자자료 및 패널 등을 통해 교육개혁프로그램 및 사례, 대학현황, 입시정책, 97학년도 입학안내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국대가 새로운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개혁내용은 학부제 시행, 3학기제

'동국 100년·비전 2006년' 주제로 학점은행제등 평생교육정책 홍보

수하면 MS인증 전문가 자격증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국내외 대학에서 1년간 수학 가능과 방학중 단기 외국어수업의 학점 인정 그리고 교양선택을 널리 위하여 전공필수제도를 폐지하는 전공학점 취득제도를 운용하여 졸업학점의 4분의 1정도의 최소전공학점을 이수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이다.

평생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위해 98년부터 전국대학 최초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는 취업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재입학하여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추가로 선택해 졸업토록하는 제도이다. 동국대는 선진교육개혁의 내용을 알리는 이 박람회 참가준비를 위해 자문위원회와 기획추진팀을 구성하는등 관련업무를 서두르고 있다.

김원우 기자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한정보급!

진품 복제경판을 보급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망이 모여져야 가능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아십니까?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의 총칭으로 경전, 율법, 논술의 삼장삼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란 불교도의 생활규범이며, 논술은 경과 율에 대한 조사물의 논론입니다.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행된 구판본 대장경은 1011년에 부처님의 탄신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방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057년까지 무려 칠십육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장경에 견주어 그 무렵으로는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211) 부인사(현 신성)에 불어난 이 구판 대장경은 고종 19년인 1222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그간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230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사업을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되니, 칠십년에 걸쳐 이 큰 불사의 경전이 바로 지금 세인상에 보존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모셨으나 제구의 노략질이 심해져서 사물의 지진사(호우)에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태조임금 폐인 138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모신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경권 판수가 팔만여 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했을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르칠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율례대로, 기일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번쯤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망이 모여져야 가능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

내용 : 반야심경
크기 : 원판의 크기와 동일 (가로 69.5cm, 세로 23.9cm)
재질 : EPOXY
서체 : 구양순체
가격 : ₩200,000
제작 : **고려대장경 연구소**
구입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